

일본 외무성 조사 자료를 통한 동해지명의 역사적 변화 연구

박 경*

Historical Changes of 'East Sea' Names from the Maps of Japanese Foreign Ministry

Kyeong Park*

요약 : 1992년 개최된 유엔지명표준화총회 이후 '동해' 지명 표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논문과 책자가 발간되었다. 하지만 'Japan Sea'로 표시된 해역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작 관심이 적은 편으로 제주도 서단과 진도 앞바다를 연결하는 선부터 부산 앞바다에 이르는 대한해협 해역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2년 회람된 IHO S-23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안에 첨부된 지도를 분석하였다. 1~3판과는 달리 1986년과 2002년 초안에는 바다지명에 계층이 도입되어 있다. 대한해협이 'Japan Sea'에 포함되어 있음을 새로이 인식하고 그 배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작성된 조선해협 경계 작전도의 경계선과 유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해의 일부로 대한해협이 포함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한 가설은 러·일 전쟁 후 일본군부가 대한해협의 승리를 일본해 해전의 승리로 선전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후 근대 일본 사료와 IHO의 문서들에 대한 사료검토를 통해 가설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에서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동해 표기, 대한해협, 해양과 바다의 경계, 러일전쟁, 국제수로기구

Abstract : As interest in the naming of the East Sea has increased since the UNCSGN held in 1992, research on the naming of the 'East Sea' has been conducted with various viewpoints, and a number of papers and books have been published.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that the boundaries of 'Japan Sea' is different from 'East Sea', and Japan Sea includes waters from the west end of Jeju Island via the sea off the coast of Jindo to off the coast of Busan. This study analyzed the maps included in the draft of fourth edition of IHO S-23 document 'Limits of Oceans and Seas'. Compared with the 1st to 3rd editions, naming rule of the 1986 and 2002 draft is hierarchical. Author aims to refresh that the Korea Strait was included in the 'Japan Sea' and to verify the hypothesis how Korea Strait was regarded as a part of Japan Sea. It seems victory in Korea Strait changed to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 in Russo-Japanese War in 1905 by the Japanese naval leaders. If the hypothesis is clearly proved through review of the historical documents of Japan and the IHO in the future, it may become a turning point in the East Sea/Japan Sea naming problem.

Key Words : Naming of East Sea, Korea Strait, Limits of Oceans and Seas, Russo-Japanese War, IHO

I. 서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듬해인 1992년 뉴욕에서 열린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총회(United Nations Con-

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는 동해/일본해 수역에 대해 '일본해'가 아닌 또 다른 이름 '동해'의 중요성을 한국 정부의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건이었고, 이후 동해 명칭에 대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park97@sungshin.ac.kr)

표 1.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정리된 4개국 고지도의 시대별 분포

	16세기이전	17세기	18세기	19세기	Total
합계	121	299	780	2193	3393
독일	78	137	392	609	1216
영국	0	0	0	50	50
러시아	0	2	13	36	51
미국	36	106	301	1285	1728
프랑스	7	54	74	213	348

출처 :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한 논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¹⁾

이후 동해 해역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됐다. 먼저, 사료와 역사적 근거를 통해 당해 수역의 ‘동해’ 단독 표기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연구와 동해/일본해 병기의 가능성을 탐진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이러한 동해 명칭에 관한 연구는 삼국사기(이상태, 2004)부터 조선 후기의 군현도 등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지명 연구(양보경, 2004)까지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방향의 연구로는 이기석(2007), 정인철(2011, 2015) 등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 도서관 소장의 지도와 아틀라스 등을 조사하여 지명 표기를 계량적인 분석방법이나 시대별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거나 권위 있는 지도학자(지리학자)의 제작방식을 분석하는 연구(정인철, 2011), 일본 내의 일본해 명칭의 정착(심정보, 2007, 2013; 김호동, 2010) 등의 연구방식도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동해’ 지명 표기의 문제에만 집중할 뿐 정작 동해/일본해로 표시되는 영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논하고 있지 않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일본해’ 정당성 주장과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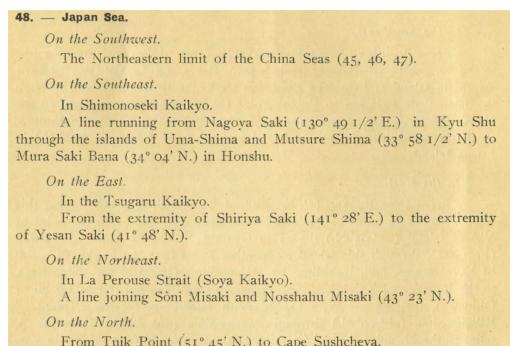


그림 1. 1928년 발간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발간번호 S-23)」 초판본에 수록된 Japan Sea(48)의 경계 관련 지명과 좌표

출처 : IHB, 1928, *Limits of Oceans and Seas*.

내용도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동해 표기를 주장하면서 채택한 계량 통계적 연구방식과 비슷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및 미국의 고지도관 등이 보유한 3,393종의 고지도 분석을 통해 ‘일본해’로 표기된 고지도가 몇 점인지, 또한 그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뿐 ‘일본해’ 영역이 ‘동해’와 같은 영역의 바다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연구는 바로 지명제정의 원칙은 자연적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지물(Geographical feature)에 대하여, 고유의 지명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동해/일본해로 지칭되는 영역의 정확한 경계와 영역이 어디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희소할 뿐더러, 지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도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이하 IHO²⁾)의 공식 문서 속 일본해의 영역에 대한 지도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김윤배·김구(2015)는 IHO의 동해 해역에 관한 지도를 소개하면서 해양을 다루는 정부 기관마다 서로 다른 동해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28년 발간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³⁾ 초판본에 기술된 당해 해역의 경계(그림 1)부터 2002년부터 초안 상태로 남아있는 S-23 문서 까지 일관되게 지도에 표기된 당해 해역의 범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IHO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Japan Sea’의 남서쪽 경계가 1905년 벌어진 러·일 전쟁 당시의 일본의 제6 경계선의 위치와 매우 유사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토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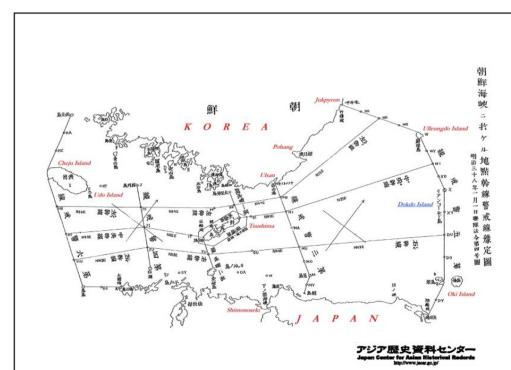


그림 2.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 확인한 러·일 전쟁 당시의 간선 경계선 지도

출처 : <https://www.jacar.go.jp/>.

II.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의 지명 표기 관련 주장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주장

일본 측이 '일본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 내용을 표현만 일부 수정하고 내용은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본해'라는 호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서 우선 확립된 것으로 그 후 20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양에서 분리된 해역의 명명 방식에는 해역을 격리하는 주요한 열도호(列島弧)나 반도 명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해'라는 호칭도 이 해역이 존립하기에 불가결한 '일본 열도'에 의해 북태평양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지리적인 형상에 착안한 것이며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 및 북한을 제외한 세계 주요 각국 지도의 97% 이상이 '일본해'라는 호칭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널리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일본해' 호칭은 18세기 말부터 일본인이 아닌 유럽인들에 의해 확립된 명칭이며, 지형적으로 대양에서 분리된 해역의 명명 방식은 열도호 또는 반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많은 나라에서 단독 표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2. 대한민국 외교부의 동해 표기의 정당성

대한민국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대한민국 외교부의 홈페이지 내용은 4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지도학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외교부).

1)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이름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명왕 편,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명 표기 관련 국제규범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해 수역은 공해가 아닌 유엔해양법협약 제122조에 의해 규정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에 해당된다.

3. 동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연구

1)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동해지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동해' 단독 표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다. 서정철(1997), 김신(1997, 2011), 오일환(2002)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고지도와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모두 동해 해역명칭에 있어서 단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해 해역의 명칭이 병기된 세계 고지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동해/일본해 병기의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두는 사례(심정보·정인철, 2011; 주성재, 2012, 2018)도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동해지명에 관련된 내용을 보거나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관련 주장을 보면, 일방의 주장에 따라 어떤 하나의 지명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지명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두 지명 모두를 사용하는 병기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도 있다(주성재, 2018).

지명 표기에 대해 '지명표준화대상 지형'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해당 국가들이 사용하는 지명을 수락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UNCSGN의 결의Ⅲ/20을 인용한 연구도 있다(박찬호, 2012). 박찬호(2012)는 법학적 관점에서 동해가 공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본 측이 UNCSGN 결의를 잘못 해석하여 2개국 이상으로 분할된 지형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단일 주권 아래에 있는 지형으로 해석하여 공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HO(2002)가 병기를 허용하고 있는 1.7번 바다, 즉 The English Channel/La Manche의 사례를 들어 동해가 마치 공해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잘못이라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IHO 결의 A4.2,6을 이용하여 동해가 4개 또는 5개(일본의 간몬해협을 포함한다면)의 해협을 통해서만이 공해와 연결되는 반폐쇄 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안국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특정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사무국이 지명과 관련한 정치적 다툼에 대하여 이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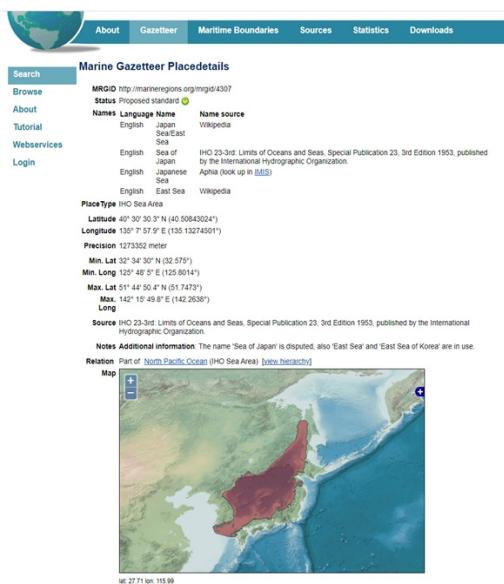


그림 3. Japan Sea 영역

출처 : VLIZ(Flanders Marine Institute) 홈페이지(2020.03.27 접속).

결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Kerr, 1994)로 근거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동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IHO의 S-23 초판이 발간된 1928년부터 'Japan Sea'의 범위를 제주도 서쪽, 진도 앞바다로 연결되는 East China Sea의 북단까지를 포함하는 것(그림 3)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대한해협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해협에 속한 수많은 섬을 공해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하게 된다는 모순도 가지게 된다(영역 부분은 III장에서 상술).

2) 사료와 고지도를 통한 연구

역사적 배경이나 사료를 중심으로 동해 해역명칭에 있어서 '동해' 단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많다(이기석, 1998; 한상복, 2000; 양보경, 2004; 이상태, 2004). 이들 연구에 따르면 문헌상에 동해의 명칭이 사용된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왕 기사부터 비롯된다고 한다(한상복, 2000; 이상태, 2004).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된 대로 북부여가 동해 변의 가섭원에서 건국한 시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BC 59년에 해당하므로, 동해가 2000년 이상 사용된 이름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서에 나타난 지명도 의미가 있지만, 지도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지명의 존재는 더욱 중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東海'라는 지명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이며, 바다에 대한 명칭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지도에 표기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로 생각되고 있다(양보경, 2004). 이러한 견해는 외국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된다(Michoudet, 2005; Watanabe and Yaji, 2010).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부터 군현지도까지 동해를 표기한 연구에 따르면 '대해(大海)', 바다 또는 육지에 '동해(東海)', '대한해(大韓海)' 표기와 조선 말과 개화기에 일부 서양인이 제작한 지도를 국내에서 중간하면서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한 지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지도가 다수이지만 팔도총도는 '동해' 지명이 비록 육지부에 표시되었으나 동해신(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처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해역을 東海로 불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양보경, 2004).

3) 국제 학술지에 나타난 동해표기 분석 연구

학술지 속의 동해/일본해 표기를 분석하는 유형의 연구로는 Web of Science DB 분석을 통해 총 4,19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표기유형별로 시계열적인 변화, 저자가 속한 국가별 표기유형 및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한종엽, 2015), 이보다 먼저 강동진 등(2009)에 의해서도 472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종엽(2015)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동해 단독 표기와 동해/일본해 병기 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동진 등(2009)은 일본해양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SCI급 국제저널인 Journal of Oceanography의 경우 동해 해역에 대한 명칭이 'Sea of Japan' 또는 'Japan Sea'가 아닌 경우 "The Editor-of-Chief does not recommend the usage of the term East Sea, East/Japan Sea, East/Japan Sea or Japan/East Sea in place of Sea of Japan or Japan Sea"라는 주석의 표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도 외국인이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동해 표기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서양 고지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국토지리원과 외무성이 유럽에서 발행된 수천 점 이상의 고지

도를 조사한 결과, 18세기 말엽까지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되었으나,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암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 19세기 초엽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 열도에 의해서 태평양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견해가 많은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측의 연구(Watanabe and Yaji, 2010)도 Lewis(1999)가 주장한 것처럼 19세기까지의 지명은 매우 부정확하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연근해 지역이나 만 등을 제외하면 외해에 지명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Watanabe and Yaji(2010)를 비롯한 여러 연구(정인철, 2010, 2015)들은 공히 1787년의 La Perouse로 대표되는 프랑스 함대의 북태평양 무역로 개척을 위한 항해와 더불어 1805년 von Krusenstern에 의한 러시아 함대 항해와 나중에 발간된 그의 항해일지가 동해/일본해 해역에 대해 'Japan Sea'의 지명이 정착하게 된 계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인철(2010, 2015)이 연구를 통해 밝힌 것처럼 19세기 이후의 지도에 대한 계량적 분석으로는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약 50년 전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제한적이 나마 교역과 교류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서양에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수많은 지도와 아틀라스에서 한국해나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찾아서 계량적인 분석을 하는 시도는 더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 동해 영역에 대한 연구와 일본해 설정 당시에 대한 가설

1. 동해 영역에 관한 연구

동해의 지리적 범위를 다룬 본격적인 연구는 2015년에 이루어졌다. 김윤배·김구(2015)는 정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동해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과, 북동쪽으로는 지형적 관점에서 타타르해협 부근까지 연결되는 동해의 특성을 무시하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관할이 미치는 해역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림 3처럼 대한해협 또는 남해를 별도의 바다로 여겨 'Japan Sea'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협을 독립된 바다로 하거나 바다와 해협의 병기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구체적인 동해의 지리적 범위에 관해서는 제시한 바가 없다.

물론 이 연구 이전에도 S-23 문서를 분석하고 경계 표기 과정을 재조명한 연구(김신, 1997, 2011)도 있었다. 일찍부터 동해 문제를 연구한 김신(2011)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수로회의가 항해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 IHO에 가입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7년이므로, 그때까지 국제적인 해도와 수로지 편찬업무에서 일본 대표에 의해 일본측의 의견만이 반영되었음을 당연하다. 하지만 김신(2011)은 IHO의 회의 내용과 분과별 구성원을 분석하면서, 동해의 지리적 경계가 정해진 과정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독도박물관(2002)이 발간한 책자에서도 조선해협의 명칭이 사라지고 대마해협(Tsushima Channel)으로 표기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朝鮮海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바다를 잊어버리고 있다. 바로 朝鮮海峽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동해 영역과 조선해협(대한해협)의 두 바다의 존재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자는 조선해협 즉 대한해협의 영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해협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Lewis(1999)의 견해를 따르다면 대한해협의 범위나 면적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해에 관한 자연과학적 논문이나 대한해협을 다룬 수많은 해양학 분야의 연구 자료의 신뢰성에 흔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다룬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동해의 지리적 범위를 다룬 논문은 지리학 분야가 아닌 해양학 분야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해양학 분야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이유는 자연과학적 필요에 기인한다. 동해에 대한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전제되어야만 해양학적 분석 및 연구결과의 축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자원 등에 대한 통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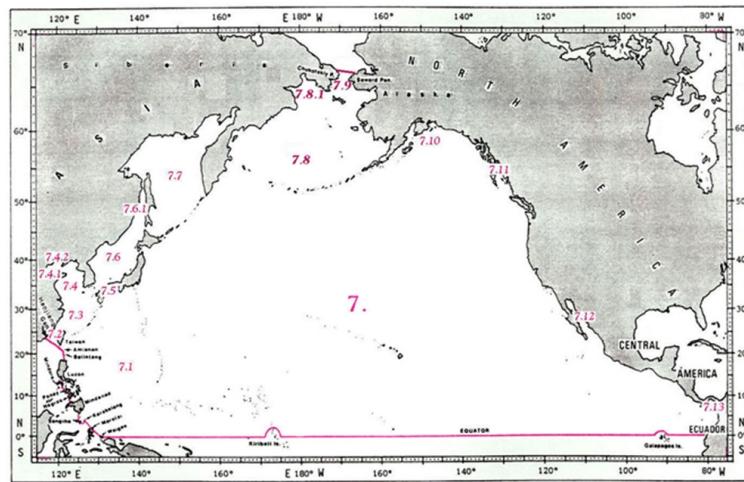


그림 4. 북태평양 해역과 분할(안)

출처 : IHO Publication S-23 Draft 4th Edition, 2002.

배·김구(2015)는 한반도 연안의 항로지(수로지에서 개칭)를 발간하는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수산 분야의 핵심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기상법에 따라 해상광역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청과 국가 해양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동해의 범위를 분석하고 몇 가지 검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검토 사항은 동해표기는 역사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해양학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해양학 관련 중요한 학술지 내에서 2004년 이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논문이 단독 표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우선은 동해의 남쪽 경계가 앞서 제시한 국내의 4개의 기관 모두가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남쪽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해양 관련 연구기관 모두가 동해의 북쪽 경계를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남서쪽으로 대한해협을 동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도 있다고 한다(그림 3). 우리의 인식 범위에서는 당연히 남해 또는 '대한해협'으로 별개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지만 IHO의 지도에 'Japan Sea' 영역에 포함됨을 지적하고 있다. IHO는 해협을 "A passage connecting two larger bodies of water"로 정의하고 있지만, 1928년 발간된 초판부터 해협의 지위에 대하여 때로는 독립된 바다 또는 바다에 부수적인 것으로 큰 바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Davis

Strait, Hudson Strait 및 (English) Channel/La Manche 등은 고유의 바다로 인정받고 있다(IHO Publication S-23 Draft 4th Edition, 2002).

또한, 검토 과정에서 결국 공식화되지 못한 IHO S-23 2002년 초안(Draft)에 포함된 지도(그림 4)와 설명을 보면 북태평양 권역 내 동북아시아 지역의 바다 명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바다 이름에 계층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Yellow Sea) 영역 내에 발해(Bo Hai)와

표 2. 7. NORTH PACIFIC OCEAN 내의 바다 명칭

구분기호	바다 명칭
7.1	Philippine Sea
7.2	Taiwan Strait
7.3	East China Sea
7.4	Yellow Sea
7.4.1	Bo Hai
7.4.2	Liaodong Bay
7.5	Seto Naikai
7.6	
7.6.1	Tatarskiy Proliv(Strait)
7.7	Sea of Okhotsk
7.8	Bering Sea
7.8.1	Anadyrskiy Zaliv(Gulf)
7.9	Bering Strait

출처 : IHO Publication S-23 Draft 4th Edition, 2002.



그림 5. Guillaume Danet에 의해 1732년 발간된 아시아지도
출처 : <https://www.raremaps.com>.

랴오동만(Liadong Bay)이 독자적인 바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이완 해협처럼 대한해협보다 규모가 작거나 비슷한 해협이 독립적인 바다의 지위와 고유 명칭을 인정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타타르해협은 7.6 바다의 하위 바다로서 독자적인 지명을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7.6은 East Sea/Japan Sea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당사자들(한·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지도와 영역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예 삭제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 해역에 속한 대한해협, 쓰가루(Tsugaru)해협, 라페루즈(Soya)해협, 타타르(Tatarskiy)해협 가운데 타타르해협(7.6.1)의 경우 독자적인 바다의 지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타이완 해협(7.2)도 독자적인 바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볼 때 1732년 발간된 유럽 지도(그림 5)에서부터 표기된 대한해협(Détroit de Corée)의 명칭이 일본해(Japan Sea) 보다도 먼저 세계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연히 독자적인 바다의 명칭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라페루즈의 항해 결과를 그린 해도에서도 대한해협(Détroit de Corée)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기존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박경·장은미, 2012). 이들 지도에서 DÉTROIT DE CORÉE는 한국해 또는 '일본해'보다 약간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MÉR DE CORÉE' 또는 'Japan Sea'의 위치가 동해 한가운데 표시되어 있을 뿐 대한해협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M. Lewis(2009)가 18세기까지 발간된 지도의 경우 바다

명칭이나 범위에 대해 'anything but precise' 즉 '절대 정확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가 소개한 하나의 사례를 인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Goode's World Atlas*에 소개된 태평양의 면적은 63,800,000 제곱 마일에 이르지만, *World Almanac* 1997년 판에 소개된 태평양의 면적은 64,186,300 제곱마일로 거의 사십만 제곱마일의 차이를 보이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Goode's World Atlas*보다 오백만 제곱마일이 더 큰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심지어 태평양과 인도양의 경계조차 특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바다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한 동해의 경계 설정은 해수 유통량 등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해양학 분야를 포함하여 정확한 자연자원 통계를 추산하는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 없다. 국내에서도 지형적 조건을 이용하여 바다 경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정인철, 2011), 본격적으로 동해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해가 19세기 말 이후 2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해협의 영역을 포함한 영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Japan Sea' 일부분인 타타르해협(7.6.1)이 분리되어 하위지만 독립적인 바다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처럼 대한해협 부분을 분리한 이후 별개의 바다로 칭하고 4개의 해협으로 둘러싸인 반폐쇄된 해역만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S-23의 Japan Sea 영역 설정에 관한 가설

III-1장에서 동해의 남쪽 경계가 기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북쪽 경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1928년 발간된 S-23 문서 「Limit of Oceans and Seas」와 첨부된 지도(그림 1, 그림 6)을 자세히 보면 소축적이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48번 영역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이 제시하는 48번 해역을 보면 왜 제주도 서쪽까지 일본해 영역이 확대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 확인한 러·일 전쟁 당시의 경계선 지도(그림 2)가 기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라페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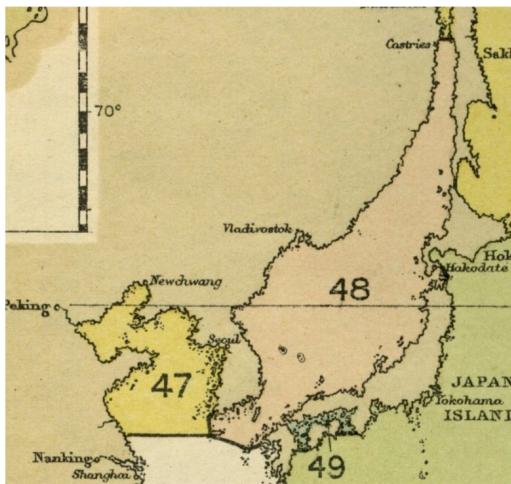


그림 6. S-23 1928년 판 지도의 48번 (Japan Sea) 해역 부분을 확대한 지도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6/Limit_of_Oceans_and_Seas_-_1st_Edition_-_1928.jpg.

와 크루젠투스터른 이후 유럽에서 먼저 'Japan Sea'라는 해역 명칭이 먼저 일반화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는 북해 등으로 표기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심정보, 2013). 특히 크루젠투스터른이 "일본해라는 것은 일본의 서해안과 조선의 동해안 및 타타르의 북위 45도 사이에 있으며, 조선해협에서 라페루즈 해협까지 폐쇄된 해역을 가리킨다고 예전부터 이해했다. 사람들은 이 해역을 조선해라고도 불렀지만, 이 바다는 조선의 해안에 극히 얼마 안 되는 부분밖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다는 일본해로 명명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라고 기술한 세계주항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일본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크루젠투스터른이 저술한 책의 내용에는 조선의 남해안과 조선해협 해역이 반폐쇄된 Japan Sea 해역에 포함된다는 기술은 없다. 오히려 조선의 경우 동해안만 접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기술을 본다면 부산부터 북쪽으로 타타르해협까지 해역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그림 7).

일본에서 19세기까지도 일반적으로 북해로 표현되던 이 해역의 명칭이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부설하고 동아시아로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북해는 북해도 인근만을 지칭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심정보, 2007). 이후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쓰시마 해전 또는 조선해협 해전으로 보도되던 이 해전을 「일본해의 해전」으로 명명하게 되는 사건이 '일본해' 지명 정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



그림 7. 1818년 A. Arrowsmith가 작성한 La Perouse와 Krusenstern의 동북아 항해도를 포함한 지도

출처 : David Rumsey Collection.

로 보인다(심정보, 2007). 당시 러·일 전쟁의 해전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지도(그림 2)의 제6 경계선의 위치가 S-23 문서에 첨부된 지도의 영역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S-23의 Japan Sea 영역의 부정확성에 관한 논의

1928년 S-23 문서가 출간된 이후 해양학과 해저지형 연구를 통해 수많은 바다의 이름이 새로 명명되거나 해역이 분할됐다. 하지만 1928년 확정된 'Japan Sea'의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거의 없으며, 당시의 기술 수준과 소축적 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GIS 기술과 고해상도 지도를 이용하여 S-23 문서의 경계를 논한 연구가 있다 (Fourcy and Lorvelec, 2013). 이들의 연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소축적 지도와 오래된 S-23 문서의 지명을 이용하여 바다의 경계를 그리는 작업의 곤란한 사례로 대한민국 연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8).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해양경계 문제에 있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인 VLIZ(Flanders Marine Institute; <https://www.vliz.be/en/maps-0>)의 것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수평 위치정확도 면에서 300m 이내의 정밀한 해안선 지도를 작성하였다고 소개하면서 Eastern China Sea, Yellow Sea, Japan Sea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 'Oku To'(그림 1)라고 표기된 지점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가 없어 외병도 서단을 선택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그림 8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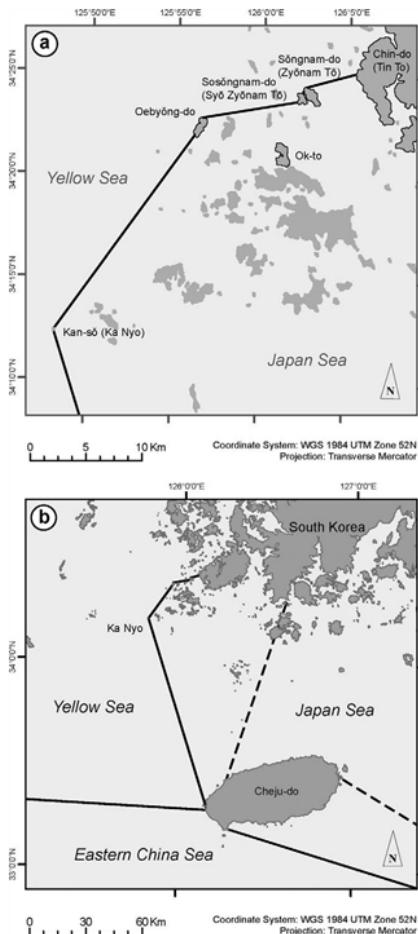


그림 8. 황해, 동중국해 및 'Japan Sea' 경계
출처 : Fourcy and Lorvelec (2013).

이 논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박경, 2011)에서 지적되었지만, S-23 문서에 현재의 옥도가 Oku To로 실제 강점기의 일본식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명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NGA에서 제공하는 지명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국내 지명 표기에 대한 이력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위치 오류를 다루는 논문에서 당해 해역에 대해 S-23 문서에 나타난 경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Japan Sea에 대한 해협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S-23 문서의 단서 조항을 보면 해협은 독자적인 바다의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고 큰 바다 일부로 표시할 수도 있으나 대한해협보다 규모도 작은 다수의 해협이 바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까이 타타르해협도 바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에서 대한해협을 분리해 하위 단계로라도 독립된 지명을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Japan Sea의 영역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동해 영역에 한정하여 경계가 정해지고 동해/일본해 병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일본 외무성이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서지 사항이 수록된 고지도들을 검토하고, 일본해 지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검색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 가능한 고지도를 통해, '일본해' 영역으로 표기된 해역에 관한 범위를 조사하고 지명이 표기된 위치를 확인하였다.

1921년 IHB가 출범하면서부터 발간된 공식 문서와 지도에서 '일본해'로 인정되고 있는 해역의 남서쪽 경계는 제주도 서단에서 진도 앞바다로 연결되는 경계선 동쪽의 대한해협 또는 통상적으로 남해로 인식되고 있는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해 표기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소개된 미국의회도서관, 영국대영 박물관, 독일 베를린도서관이나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의 서양 고지도를 보면, '일본해'라는 지명 표기가 18세기 말 이후 200년 동안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내 학자들에게서도 인정된다. 특히, 18세기 말 라페루즈와 크루센슈테른의 항해 결과가 유럽 지도 제작에 반영되고, 16세기 포르투갈 상인의 표류 이후 활동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과 나가사키의 인공섬 데지마에 자리 잡고 일본의 개항기까지 지속한 네덜란드 상관의 교역 활동을 생각한다면, 유럽인들에게 일본의 지리정보가 훨씬 더 알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반면, 조선 초기 이후 명나라의 해금정책과 맞추어 조선 초기부터 해금정책과 공도정책을 펼친 조선을 비교한다면, 일부 프랑스 지도를 제외하고 19세기부터 대부분 유럽의 지도가 이 해역에 대해 '일본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반페쇄해'인 일본해로 편입시켜 하니의 바다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항해에 관련된 표준을 정하는 IHO의 공식 문서와 지도에 표현된 'Japan Sea'의 범위는 대한해협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도, '일본해'의 서쪽 경계를 정하면서 러·일 전쟁

당시 사용한 작전지도에 표시된 경계선과 유사하게 조선 해협의 범위를 정하고, 조선해협의 승전을 ‘일본해’ 해전의 승리로 선전하게 된 초기 일본 제국주의 해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IHO 이전 국제수로국(IHB)의 창립 당시 구성원들 대부분이 각국의 해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가능성 이 커진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에 속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수천 개에 이르는 유인도와 무인도가 ‘일본해’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현재의 경계는 표 2에서 소개한, 타타르해협처럼 계층적 바다지명 원칙을 수용하여 신속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해역의 남서쪽 경계만이 아니라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활동의 중심 무대로서 동해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동해의 북쪽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학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해의 남쪽 경계를 국립해양조사원과 「영국 수로지」와 「미국 수로지」 등에서 공인하고 있는 부산 이북의 바다로 한정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Japan Sea’의 영역이 조정되고 경계 문제가 시정되면서 동해/일본해 병기 문제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20세기 초를 비롯한 근대 일본사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IHB 창립 준비 단계였던 런던회의와 모나코 회의 등 설립 당시의 경계 확정 과정에 관한 역사적 문서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註

- 1) 이 연구는 당해 해역의 명칭에 ‘동해’ 표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외교부,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원 및 동해연구회를 비롯한 연구자와 민간 단체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고자 한다.
- 2) 국제 수로 기구(國際水路機構,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는 1967년에 모나코에서 열린 9차 국제수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에 의거하여 1970년에 출범하였다. 1921년에 설립된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이 국제 수로 기구의 전신이다.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인 통일, 국제 공동조사,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세계의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S-23(Special Publication)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해도집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76개국이며 대한민국은 IHO 전신인 국제수로국 시절이던 1957년에 가입하였다. 본문에서는 모두 직접적인 출판물 외에는 IHO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 3) 기존에 출판된 여러 연구와 기사에서 초판본의 발간연도를 1929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https://news.joins.com/article/2560270>), 필자가 조사한 자료(US Weather Bureau)에 의하면 1928년 8월 발간된 것이 확인된다. 2판은 1937년 7월 발간되었으며, 3판은 1953년에 발간되었다. 4판은 1986년에 만들어진 초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어 1998~2002년까지 1986년 초안을 기초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으나 결국 출판되지 못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2018-1-11-02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강동진·임병호·장소영·김윤배·김경렬, 2009,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동해의 표기 현황,” *Ocean and Polar Research*, 31(1), 133-156.
- 김신, 1997,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두남.
- 김신, 2011, “동해경계와 표기과정 재조명,” 인터넷비즈니스 연구, 12(1), 111-133.
- 김윤배·김구, 2015, “동해 지리적 범위 사용 사례 및 정립 필요성,” 수산해양교육연구, 27(5), 1380-1394.
- 김호동, 2010, “「日露清韓明細新圖」에 표기된 ‘일본해’ 명칭의 역사적 의미,” 한국지도학회지, 10(1), 27-37.
- 독도박물관, 2002, 「잊혀진 “조선해”와 “조선해협”」, 연구자료총서 II.
- 박경, 2011, “구글사의 위성영상과 미국의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일본식 지명연구-미국 군사지도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한국지도학회지, 11(2),

- 39-49.
- 박경·장은미, 2012,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말까지 한국 수로조사에 미친 서양의 영향: 해안가 지명과 해저지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3), 17-25.
- 박찬호, 2012,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3(3), 115-141.
- 서정철, 1997, “고지도의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동해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발표 논문집」.
- 심정보, 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지도학회지*, 7(2), 15-24.
- 심정보, 2013, “일본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해역의 지명,” *한국고지도연구*, 5(2), 19-32.
- 심정보·정인철, 2011,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영토해양연구*, 2, 6-29.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16(1), 89-111.
- 오일환, 2002, “서양 고지도 속의 동해 표기-18세기를 중심으로,” 「동해 명칭에 대한 학술 세미나: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와 향후 대책」.
-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3(4), 541-556.
- 이기석, 2007, 「동해명칭의 국내외적 정착 연구용역」, 국립해양조사원.
-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지리*, 16(1), 157-164.
- 정인철, 201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0(2), 13-27.
- 정인철, 2011, “부아쉬의 산맥체계에 의한 바다분류가 동해 표기에 주는 시사점,” *한국지도학회지*, 11(2), 15-26.
- 정인철, 2015, 「한반도, 서양 고지도로 만나다: 중세부터 근대까지 서양 고지도 속 한반도에 대한 총체적 분석」, 서울: 푸른길
-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6), 870-883.
- 주성재, 2018, “두 지명 사용의 본질과 실행 가능성: 동해 수역 병기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한국지도학회지* 18(3), 33-43.
- 서정철·김인환, 2014, 「동해는 누구의 바다인가」, 서울: 김영사
- 한상복, 2000, 「독도와 동해」, 서울: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 한종엽, 2015, “동해 표기에 대한 계량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2(1), 23-41.
- Fourcy, D. and Lorvelec, O., 2013, A new digital map of limits of oceans and sea consistent with high-resolution global shoreline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9(2), 471-477.
- Kerr, A., 1994, Problems and Progress - Defining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 <http://eastsea1994.org/data/bbsData/14630214691.pdf>.
- Lewis, M., 1999, Dividing the ocean sea, *The Geographical Review*, 89(2), 188-214.
- Michoudet, C., 2005, The Naming of the Korea-Tsushima Strait: Cartographic Origins and Current Custom, The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Washington DC, USA.
- Watanabe, K. and Yaji, M., 2010, Study on the geographical name “Japan Sea”, 16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http://www.eastsea1994.org/data/bbsData/14630315201.pdf>
- 국제수로기구 IHO, <https://ihc.int/en/ihc-publications>
- 대한민국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 일본외무성, <https://www.mofa.go.jp/policy/maritime/japan/index.html>
- David Rumsey Map Collection, <https://www.davidrumsey.com/>
- IHO Publication S-23 Draft 4th Edition, 2002, https://legacy.ihc.int/mtg_docs/com_wg/S-23WG/S-23WG_Misc/Draft_2002/Draft_2002.htm
- S-23 Limit_of_Oceans_and_Seas_-1st_Edition_-1928.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6/Limit_of_Oceans_and_Seas_-1st_Edition_-1928.jpg
- VLIZ, <https://www.vliz.be/en/maps-0>

교신: 박경, 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2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이메일: kpark97@sungshin.ac.kr)

Correspondence: Kyeong Park,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ungshin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02844, Republic of
Korea (Email: kpark97@sungshin.ac.kr)

투 고 일: 2020년 4월 6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3일

투고확정일: 2020년 4월 14일